



[경제종합]
달러 초강세 지속
1400원 시간문제
03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415.61	코스닥	788.32
	(-56.44)		(-18.72)
금리 (미국 3년)	3.778	환율 (원/달러)	1354.90
	(+0.093)		(+17.30) <1일>

‘반도체 초강대국’ 외치더니 인프라 예산은 ‘쥐꼬리’

반도체 인프라 지원 위해 1조원대 예산 요청 했지만 기재부 고작 1471억 편성 인력·기술개발 집중 배정

반도체 인프라 조성 대책이 예상보다 크게 축소됐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이상 기후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 반도체 단지 전력 및 용수 기반 구축 지원 예산을 1471억원으로 정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1조1377억원을 편성했지만, 인력 양성에 4498억원, 기술개발에 3908억을 배정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기재부와 산업부가 내던 반도체 인프라 구축 지원에 중점을 두자고 협의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국내 반도체 업체가 경쟁국가들과 달리 직접 용수와 전력 등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는 것.

이를 위해 산업부가 요청한 예산은 1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실제 예산안에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기재부가



추석 택배전쟁 시작

1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대구우편집중국에서 직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를 분류하고 있다. 올 추석 명절 소포우편물은 약 1,917만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스시스

내부 검토 과정에서 지출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고, 반도체 인프라 조성 예산 규모도 부담스러워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더해 정부도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 추가 양성 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을 이 부분에 집중 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반도체 업체가 당장 인프라 구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자체 발전소 건설 등 미래 준비도 진행 중이다. 지리나 환경적인 면에서도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반도체 업체가 인프라와 관련해 꾸준히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만큼, 정부도 현실적인 지원에 먼저 나서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착공도 인프라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초기에는 안성시가 오페수 문제로 반대를 표했고, 최근에는 여주시가 공업용수 지원을 못하겠다고 나섰다. 사기업이 지자체와 협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삼성전자도 평택 사업장

을 건설하면서 송전탑 문제로 가동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송전탑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이 반발한 탓. 결국 지증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긴 했지만, 공사 지연 뿐 아니라 500억원에 달하는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는 반도체 산업에 인프라 구축 문제를 더 시급하게 한다. 2020년 미국 텍사스가 폭설로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탓에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수천억 원 규모 손해를 입었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社告

‘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 포럼’

수소·전기차는 달리고 싶다

- 규제혁파의 시간 -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며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컵 대신 종이 빨대와 머그잔을 사용하거나 배달 음식 주문 시 일회용 수저나 젓가락은 제외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는 자동차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은 매년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와 함께 궁극의 친환경 자동차로 불리는 수소차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자동차 시장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규제와 턱없이 부족한 충전 인프라, 정부 지원 부족 등으로 글로벌 시장 성장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포럼에선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김철환 이노신크컨설팅 상무, 권낙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센터장, 박재범 포스코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알토티 같은 강연을 펼친다.

- 행사명 : 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 포럼
 - 주제 : 수소·전기차는 달리고 싶다 - 규제혁파의 시간
 - 일시 : 2022년 9월21일(수) 14:00~17:00
 - 장소 : 서울 중구 을지로5길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사전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온라인 접속 : 신청자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개별 공지
 - 문의 : 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 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144min)을 드립니다.
*상기일정 및 후원,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생이 곧 힘... 경제협력 보폭 넓혀 글로벌 가교役

M-커버스토리

대한상공회의소 변신

최태원 회장 필두, 소통 활발 공급망·기후변화 등 영역 확장 국제사회 현안 협력 한층 강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9일 에너지 합리적인 전력시장 개편 및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가와 경제계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기관인 한국 및 해외 상공회의소들이 위기에 처한 각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 및 해외 상공회의소들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동안 보수적으로 세수를 전망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각종 사회 이슈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주춤하자 위기에 처한 상공회의소들은 전략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나가기 시작한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최태원 회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변화가 일고 있다. 최 회장을 필두로 중국, 유럽, 미주 등 해외 상공회의소 간 협력 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과의 소통도 활발히 하며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간 소극적이었던 해외상공회의소들도 이 같은 한국의 적극적인 행보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코로나19 이후 수출, 수입, 무역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정립

되고 있지 않은 현 시점 상공회의소들의 활동이 눈에 띈다.

◆ 한국을 벤치마킹 하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코로나19시대 속에서도 2020년 GDP 성장률 -1%에서 2021년 4%로 상승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좋은 성적으로 세계 경제 강대국 10위 권 안에 들게됐다. 그 결과 한국은 FTA의 탄탄한 네트워크가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며 외신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해외 정부 및 기업들은 한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단체, 기업, 정부 등과 다양한 협력을 이어나간다.

우선, 지난 7월 정부는 한국과

프랑스, 독일 그리고 유럽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 하기 위해 한불상공회의소, 한독상공회의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해당 간담회는 국제 무역 및 투자 정책 등에 대한 정부의 소견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간담회서는 국가간 외국 기업 투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토론회 중에는 한-EU FTA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 정책이 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 및 한국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는 바이오 및 R&D분야의 글로벌 시장 확장 등의 전반이 다뤄졌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EU 대사는 간담회서 “5대 유럽과 한국의 협력을 위한 장”이라고 표한 바 있다. <4면에 계속>

/최빛나 기자 vitna@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北피살 공무원’ 수사팀, 박지원·서훈 자료 포렌식 완료... 분석 중 /사진 뉴스시스
▲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시사... “의원총회 의견 존중”

▲ 반쪽 중부세 완화에 1주택 특별공제 대상 9.3만명 대환란
▲ 서울시 일하는 부모 10명 중 3명 “출산 휴가·육아휴직 못 썼다”



▲尹,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인호(왼쪽)·국가과학기술회의 이우일 내정 /사진 뉴스시스
▲이준석, 윤리위 추가 징계 시사에 “대법원 위에 있는 절대자”